

고호석(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감사1) 1차 구술

1. 구술자: 고호석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2년 2월 3일
5. 구술장소: 부산 연제구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
6. 구술분량: 08분 46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부림사건²⁾ 재판과 노무현 변호사의 변모과정(1)

구술자 : 어느 날 이제 변호사 접견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그래 가보니까 제가 옛날에 봤던 약간 촌스러운 그분이 와있더라고요. 아, 이 노무현 변호사구나. 그래서 이제 보고, 이렇게 변호인 선임을 하고 그렇게 갔지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일반 접견은 가운데에 유리창이 이렇게 탁 쳐져있고 만나지만 변호인 접견은 이렇게 유리창이 없는 곳에서 바로 만나요. 그러나 옆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위축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하고 얘기하는 걸 옆에서 다 적고 있어서 우리는 무슨 얘기하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노 변호사님이 처음 우리를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생도 아니었고 딱 보니까 교사거든 어쨌든. 제가 여하튼 교도소에 갔을 때도 교사라는 것 때문에 한 점 먹고 들어가는 면이 있어요. 교도관들도 고등학교 영어교사, 이러니까 함부로 안하더라고, 좀 조심을 하더라고. 그러나 뭐 무직, 학생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깔보고 이렇게 해요. 노 변호사님도 처음엔 그냥 학생,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교사 이렇게 돼있으니까 나이는 아직 젊지만 그 당시 제 나이 스물여섯 살이었으니까. 젊지만, 그래도 인제 약간은 조심을 하셨고.

1) 2012년 2월 구술 당시 현직

2)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정권이 이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당시 반독재투쟁의 중심이었던 학생들을 용공혐의로 대거 구속함으로써 이들을 대중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사건으로 1981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다.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정부전복집단으로 매도되어 총 22명이 구속되었고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다. 이들의 변호인단으로 노무현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197쪽 참고.

면회를 하면 할수록 ‘아, 요거 보라’ 자기 느낌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되게 위축돼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가 어쩔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는 ‘아, 우리가 이렇게 돼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이제 우리 편인 변호사도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가족들 면회도 수시로 좀 되고, 바깥에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우리 얘기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운을 서서히 좀 차렸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이거 진짜 엄청난 왜곡이고 사기다, 이거는. 우린 진짜 개 맞듯이 맞았다. 고문당했고.’ 그리고 이제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이제 그 고문을 당하면서 ‘통닭구이’³⁾를 당했었는데 그러면서 발톱이 하나 죽었어요. 왼쪽 발톱이 하나 죽어가지고 썩어 들어가는데 그게. 그러니까 저놈들이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교도소에 가서 그게 완전히 어느 날 썩 빠지더라고. 발톱이. 아니 그냥 천추에 한이 되는 건 휴지 같은 데 잘 싸서 어디 잘 숨겨놨다가 변호인 접견 왔을 때 노 변호사님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별 생각 없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천추의 한이 되지요. 그런데 어쩔든 그런 얘기도 했지요. 맞았고, 발톱이 빠졌다. 그런데 이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양말을 딱 벗으면 빠진 발톱은 없지만 이 발톱 자체가 없잖아요. 그 모양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이놈들이 워낙 즈그(자기) 조사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는 안티프라민으로 막 마사지도 하고 병원 의사들 불러가 치료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석 달 이상을 철저히 격리시켜놨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별로 맞은 흔적 같은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건 뭐 어떻게 숨길 수 없는 그런 생생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변호사님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는 어쩔든 참 잘난 변호사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래서 판사도 잠시 하다가 변호사로 왔고. 자기가 정말 수호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법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권력에 의해서 어이없이 유린당하고, 아무것도 안 지켜지는 거죠. 형사소송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행형법(行刑法)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지켜지는 걸 자기

3) 고문의 일종. “...손등, 손바닥을 수없이 난타하고는 ‘통닭구이’하고 외치더니 끈으로 손발을 묶고는 손과 종아리 사이로 굵고 긴 몽둥이를 가로질러 넣고는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 발, 온몸을 때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즈 사료, <학림, 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 중 부림사건 피해자 김희옥의 자필 진술, 1982, 참고

눈으로, 엄연히 증인이 바로 앞에 있으면서 얘기를 하고, 보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처음에 정말 처참하게 찌그러져있던 모습에서 조금씩, 조금씩 기운을 찾으면서 눈에 형형한 빛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아주 확신에 차서 ‘이놈의 나라는 옳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는 너무나 옳고. 이 공소 사실은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어진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그런 근거에 대해서 일부, 뭐 거기서 논리적으로 막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님 가시거든 ‘전환시대의 논리’ 4)나 한번 읽어 보이소. 그것도 안보시고 저희들을 변론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공소장에 막 나오는 책들을 보면서 “이런 책들이 그래 뭐 좋나?” 이렇게 (묻고). 최소한 이제 변호사님이 ‘전환시대의 논리’ 또는 ‘우상과 이성’ 5), ‘후진국 경제론’ 6), 뭐 ‘민족경제론’ 7) 이런 등등의 책들은 변호사님이 저희들을 변론할라면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권했지요.

그래 처음에 전환시대, ‘전환시대의 논리’ 를 보시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걸 읽고 우리한테 변호사 접견을 오셨는데 그 표정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상당히 충격을 받은, 예예. 그런 표정이었고. 지금도 기억나는 건 하여튼 그 이후에 책을 읽으셨는데 ‘후진국 경제론’ 같은 경우는 밤을 새워 읽었다고 들었어요. ‘그 책이 참 재있더라’, 정말 자기한테 세상을 확 이렇게 꺼꾸로 뒤집어서 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다(고 해요). 물론 다른 책들도 그 이후에 많이 읽으셨어요. 우리 공소장에 나왔던 책들을 참 많이 읽으시긴 했는데 뭐 ‘역사란 무엇인가’ 8) 이런 거 정도는 그래 뭐 이런 정도는 자기도 자기머리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셀리그만(seligman)이라는 사람이 쓴 ‘경제사관의 제 문제’ 9) 이런 것들이라던지 ‘제삼(3)세계의 이해’ 10)라던지 이런 책들도 꽤 재미있게 읽으신 것 같고. 제 기억에 지금 확실히 남아있는 건 ‘전환시대의 논리’ 하고 ‘후진국 경제론’ 두 권은 매우 충격적으로 읽으셨고 변호사님이 확실히 우리 편에 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책이다. 그렇게 봐요. 하여튼 그러면서 책과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문 받았

4) 리영희 저작. 1974년 출간

5) 리영희 저작. 1977년 출간

6) 조용범 저작. 1973년 출간

7) 박현채 저작. 1978년 출간

8) Edward Hallet Carr 저작.

9) Edwin Robert Anderson Seligman 저작.

10) Samuel Palmer 외 저작.

던 이야기들, 또 사회에 대해서 ‘여기에 적힌 게 너희 생각이 맞냐?’, ‘아이다. 그거는 아니다’, ‘그럼 진짜 느그(너희) 생각은 뭐냐?’ 이 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됐지요. 변호사님은 어쨌든 우리의 사고나 논리체계 자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말이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고. 그런 기저에서 변론에 임하셨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 편이 되어 주셨어요.

■ 구술자 주요이력

- 1956. 부산 출생
- 1976.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
- 1980.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부산대동고등학교 영어교사로 부임

- 1981. 부림사건으로 구속
- 1983. 형집행정지로 김해교도소에서 출소
- 1984. NCC 부산인권선교협의회 간사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 창립 및 활동 참여
- 1987.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차장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사무국장 겸 상임집행위원
- 200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부장(2년)
부산교육개혁연대 상임대표, 부산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
민주공원 상임이사, 6·15부산본부 공동대표
- 2009. 전교조 부산지부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 2010. - 전교조 부산지부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소장(2012년 현재)
- 2011.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감사(2012년 현재)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일 때 강제 연행된 1981년 부림사건 피해자. 변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차장,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사무국장 겸 상임집행위원으로 ‘노변’ 과 부산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지켰다. 2012년 현재 전교조 부산지부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감사를 맡고 있다.